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1 고정합판 : MBC-TV 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1 시 공 제 : 용두사 복운암, 연신암도 불명암, 장신 불명사, 불명 정안사, 서울 불명사, 목한산 불명사, 포안 정안사, 가평 불명사 법흥사 등  
 행명 코리마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i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15일(음력11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504호

## 국제포교 현장 '부실' 투성이

국제포교사 외국어 능력·포교전략·재원 등 함량 미달 지적

### "선발·운영체계 정비해야" 여론

조계종 국제포교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제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종단 방침과는 대조적이다. 포교원 향후 10년 계획에 국제포교 활성화가 핵심사안으로 포함되고, 12월 14일에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종책 세미나'도 열린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7일 가진 교계기자 간담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포교 활성화 등 국제포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달리 실제 국제포교 현장에서 뛰는 국제포교사 양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첫 국제포교사 고시 이후 올해 11월 30일 선발된 인원까지 등록된 국제포교사는 200여명.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포교사는 1/3 수준에도 못미친다. 3년마다 한번 있는 포교사 자격 갱신 때에만 나타나는데 암재 유행회원들도 상당수다. 심지어는 미국 비자발급의 편의를 위해 자격증만 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왜 이렇게 활동이 빈약하고 관리체계가 부실할까? 국제포교사들의 단체인 포교원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교육체계의 부실, 국제포교사회 차원의 일괄 부족, 포교 전략 부재, 재원 부족, 국제포교사 자질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국제포교사회 1년 예산의 대부분은 포교원에서 지원하는 상주 간사 인건비와 소정의 사업비가 전부다.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 독자사업 추진이나 포교방법 연구 등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국제포교사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외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국제포교사도 적지 않다. 선발과정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선발 자체도 다양한 평가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사에 참가한 포교국장 선용 스님은 "이번 합격자 가운데 일본인 종교계는 한국불교에 대한 소양은 조금 부족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등 포교의지가 있어 합격시켰다"며 이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합격자 기준이 언어능력에 치우쳐다 보니 국제포교사 자질 부족이 따른다. 포교원 주관으로 매년 4~10월 진행되는 국제포교사 양성 과정만으로는 불교적 소양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내년에는 예산문제로 양성과정이 폐지됐다. 국제포교사에 대한 재교육의 부재 역시 자질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악순환을 양산하는 요소다.

김봉래 국제포교사회장은 "교육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국제포교사회가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해 포교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포교사 활용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종단의 과제이다. 국제포교사회는 적절한 관리체계, 재교육 프로그램, 특별 영예 구축 작업 등을 통해 포교사들의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양장은 국제포교사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실효성이 없다. 국제포교사회 재정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 전통사찰에서 국제포교사회와 결연을 맺고 매주 외국인을 위한 법회, 다도, 참선 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국제포교사회 지정 사찰에서 외국인 전문 법회와 템플스테

이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 국제포교사 응시자격 기준을 2년제 불교교양대학 이수자로 제한하고 동국대학교나 숭실대학교에 국제포교학과를 세워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국제포교사회에서는 말한다. 3년마다 있는 국제포교사 자격갱

신을 위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3년간의 포교활동보고서 뿐 아니라 회비납부, 교육 참가, 팀 참가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영역서 출판사업 같이 국제포교와 밀접한 분야의 재원 마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포교원에 국제포교 전문가 또는 연구팀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국제포교 전략과 국제포교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내 외국인의 성장, 해외 불자들의 성장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파악해 총체적인 국제포교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조계종의 국제포교 활성화는 요원하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 개막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이 12월 8일 서울 시간동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장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총무,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최종대 서울대 명예교수, 조승환 동국대 교수 등 1백 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불자 작가로 참가한 류종민 교수(중앙대 조소과)가 아크릴 거울과 한지로 제작한 자신의 공예작품 '월인(月印)'을 내빈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법장 스님, 류종민 교수, 장의 주교, 도후 스님, 김광삼 사장.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이 주최하는 '가톨릭과 불교 미술인의 만남'이 12월 8일 서울 시간동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장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총무,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최종대 서울대 명예교수, 조승환 동국대 교수 등 1백 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불자 작가로 참가한 류종민 교수(중앙대 조소과)가 아크릴 거울과 한지로 제작한 자신의 공예작품 '월인(月印)'을 내빈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법장 스님, 류종민 교수, 장의 주교, 도후 스님, 김광삼 사장.

사진=박재원 기자

## "공식사과 못합니다"

정장식 포항시장 교계 요구 거부... 종편위 '퇴진운동'

정장식 포항시장이 불교계가 요구한 '홀리클럽' 탈퇴와 공식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포항종교편향대책위(이하 종편위)는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9일 낮 12시까지 정장식 포항시장에게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에서 탈퇴할 것과 정 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요구사

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된 범불교대회를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시장은 대책위가 제시한 마감시한까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아 불교계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종편위는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 시장 퇴진운동

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종편위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정 시장에 대한 '구단대회'를 '퇴진대회'로 전환키로 하고 포항불교사임권, 조계종 대구경북 5개 본사, 태고종, 천태종 대구 경북부, 진각종 포항교구청, 범불교종교교구 12개 단체를 비롯한 불교계 전 종단이 참여하는 '사회와 종교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범불교대회'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종편위는 정 시장의 종교편향 행태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진우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제10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임박**

원고지 30매... 12월 15일까지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불타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유마상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이끌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벳'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IP n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벳(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벳(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 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벳(i-BUD): 아이벳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 상세정보 32면 광고 참조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깃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성철스님의 3000배는 망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모으는 뜻이죠

수행의 맛을 본다는 남이 하라 마라 안하도 열심히 하게 돼 있죠

도견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佛 老天堂 月下 大宗師 涅槃 一週忌 추모법회 및 부도탑 제막식 行**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와 부도탑 제막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12월 20일 월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설법전 및 부도원
- 주 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 연락처 : 중무소 055)382-7182~7

※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비문에 등재된 문도질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니 1주기 추모법회 직후 주지실에 비치된 명단에 누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에 확인절차가 끝나면 누락,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될 예정이오니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12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문도일동 합장**